



오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_사편 1:1~3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3 | 담임목사님 인터뷰 | 6-9 | 제직부서편성 | 14 | 교회사용설명서 |
| 4 | 국수/서점 | 10-12 | 신춘문예 | 14 | 교사일기 |
| 5 | 제직수련회 | 13 | 청량리밥퍼 봉사후기 | 15 | 십자말풀이 |

우리는 B.M.W.로 교회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이 땅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말로 해석해서 우리의 편의대로 이용해왔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다른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는 깊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그 영향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늘어난 탄소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가속되고 그로 인한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전 세계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하나로도 평가받고 있다.

주님의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도 생태정의 포럼을 개최하여 교회 공동체가 생태적 회개와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캠페인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을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공동으로 시작하면서 교단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두 기관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실천사항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자동차 대신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님의교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참 좋은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내리면 교회가 바로 있다. 간선버스는 9개(301, 333, 341, 342, 345, 350, 360, N13, N31)노선이 있고 일반버스 2개(11-3, 917), 지선버스 10개(2415, 3217, 3314, 3322, 3411, 3412, 3414, 3417, 3422, 4319)노선이 있다. 직행버스도 8개(1100, 1700, 2000, 2000-1, 6900, 7007, 8001, 9303)노선이 종합운동장역 정류장에 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이 우리 자신을 돌보고 지키는 길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인 이 세계를 우리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교만이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생각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 이용이다.

물론, 영유아가 있거나 몸이 불편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원거리 출석하는 교인도 오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망설여질 수도 있다. 그래도 가끔은 B.M.W.(Bus(버스), Metro(지하철), Walking(도보))로 교회오는 것은 어떨까? 탄소배출을 줄여 창조세계돌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세워가는 또 하나의 사역이 될 것이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창 밖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햇살과 바람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함글함글



특집
담임목사님 인터뷰

믿음의 핵심은 말씀에 대한 믿음

2023년 1월 29일,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이라는 교회 표어에 따라 여러 사역 준비와 함께 그동안 여러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갖지 못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핵심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안식년을 준비 중인 김화수 담임목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한결같은 온화함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함몰함몰

올해는 부임하신 지 6년차를 맞으시는 해입니다. 임기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어떠신지 그 소감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실감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교회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은 후, 10년간 주님의교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는 계속된 제 질문이고 고민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임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주께서 담임목사의 임기 동안인 제 인생의 10년을 주께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저도, 염려도 없이 제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제 인생의 10년을 맡으셔서 행하실 것을 믿었기에 제 인생의 10년을 드렸는데, 되돌아보면 지난 제 사역은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행하신 손길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제 임기 동안의 사역도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흔들림 없이 따라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가정이 신앙의 주체이며, 가족이 신앙교사라는 주제로 가정사역에 중점을 둔 여러 목회 활동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그러한 목회 방향이 너무나 적절하고 꼭 필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조해왔던 가정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 교회와 성도님들 안에 잘 스며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각 가정이 신앙의 주체이며, 신앙교사로서 계속 지켜야 할 신앙생활의 태도와 가치는 무엇인지요?

유아숲, 유소년숲 가정 중 적지 않은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신앙의 주체요, 가족이 신앙교사됨을 실감한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일들이 온라인예배와 더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종종 듣습니다. 가정이 중심이 된 신앙의 삶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표징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기도 했지만 가족이 중심이 된 신앙의 삶은 강요나 억지로가 아니라 현실속에 길을 찾는 과정에서 익숙해져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정이 신앙의 주체요, 가족이 신앙교사됨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며 말씀묵상과 나눔에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말씀묵상과 나눔의 자리는 신앙생활의 태도와 가치의 '캐츠 아이'역할을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점차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며, 반대로 새롭게 얻게 되거나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3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3가지는 '말씀'과 '섬김과 봉사' 그리고 '교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고, 이 3가지 중 둘인 '섬김과 봉사'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거의 잃어버리고 살아옴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누고 누리는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나중에도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어,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 더욱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일상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전과는 분명 다른 일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교회는 어떤 것들은 준비하며 그러한 변화에 대비해야 할까요?

여러 부분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가장 중요한 예배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종식되어 가고 있지만 대면예배로 복귀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약 1/3 가량이 됩니다. 3여 년간 이어진 온라인을 통한 예배드림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온라인예배가 개설되어 온라인예배도 예배드림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대면예배와는 비교 자체가 안될 만큼 준비에도 소홀하고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면예배와는 달리 온라인예배를 드리면서는 복장도 갖추지 않고, 자세와 태도도 거실을 오가기도 하고 간식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그 사실에 개의치 않는 모습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온라인예배를 대면예배처럼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시스템화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주님과함께'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큐티를 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큐티나눔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성도들이 큐티를 지속하며 더욱 나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교우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묵상한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만남의 주제로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말씀묵상에 더 집중하게 되고 묵상한 그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되는 선순환의 고리가 소그룹공동체 곳곳에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나눔의 삶이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고 스스로를 거룩함으로 성장하게 하니까 이것이 큐티 나눔의 유익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큐티의 지속성은 성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말씀묵상에 더욱 열심을 경주하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집
담임목사님 인터뷰

가정사역원(BPC)을 통해 전 세대에 걸쳐 생애주기별 교육이 완성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가정사역원(BPC)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 목표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요?

가정사역원(BPC) 사역의 목표는 “가정의 회복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강좌라도 참여자가 없다면 그 강좌는 효용가치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원에 개설된 강좌들이 실제로 교우들의 삶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좁히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자연스럽게 강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가정이 중심된 현장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일에 집중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교회 교우들이라면 누구라도 가정사역원(BPC)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해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회가 35주년을 맞습니다.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데 주님의교회도 이전 세대를 지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허리가 되어야 할 4050세대들이 어떤 생각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이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앞장서서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신앙의 삶을 이끌어야 할 세대가 4050 세대로 여겨집니다. 결혼연령이 늦어져서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 연령이 이제 40대 50대 초반으로 자리매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주차봉사 등등으로 섬기는 사역보다, 먼저 가정에서 신앙의 삶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자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된 자신들도 신앙의 삶이 가정이 중심이 된 신앙의 삶을 계도하고 헌신할 때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세대로서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주님의교회는 정신학원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학원과 관계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청소년 사역과 관련해 정신학원과 협력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신학원과 우리의 관계는 가족관계, 그것도 떨어질 수 없는 가족관계라는 의식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 의식을 분명히 하면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과의 여타의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 사역과 관련해서도 가족의식으로 접근해가면 무엇을 협력하고 무엇을 동역해야 할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신학교에 무엇인가를 도와주거나 섬긴다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WITH)라는 의식을 갖고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정신학교를 지원할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신학교가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할 때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이 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 세워가는 사역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교회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는 하나님나라가 되는 것이 주님의교회 가족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일상 속에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예수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이의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고 믿는 이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주목하고 우리의 삶을 읽고 느끼며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맞출 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함즐함울은 지면을 통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 매체가 아니라 블로그 등 디지털과 모바일로 대표되는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함즐함울을 발행하시면서 좋았던 부분과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지 등 앞으로의 함즐함울 기획에 필요한 목사님의 생각과 도움 되는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소통하며 삶을 나눌 장이 의외로 부족한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인데, 함즐함울은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현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온 것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굳이 찾는다면 개인이나 부서나 기관이 더불어 살고 함께 나누었던 간증들이 지속적으로 지면을 통해 나누어질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년을 맞이해서 주님의교회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럴드 싯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성경 속 인물들에게 고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고뇌가 아니라 그 뜻대로 살려는 고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민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저도 안식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재충전하고 잘 무장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화수 담임목사는 그동안 핵심을 단단히 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재충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임기 절반을 지나며 구별된 시간으로 재충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여 2월부터 6개월의 안식년을 갖기로 했다. 코로나 전에 계획했던 성지순례 일정을 마친 후에는 서울에서 잠시 벗어나 건강도 챙기면서 성경과 책을 읽으며 보낼 시간이 매우 기대가 된다고 했다. 교회와 하나님나라를 위해 다시금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함즐함울

교회소식

주님의교회 국수, 제4세대 출범

2023년 2월 5일, 주님의교회 국수의 제4세대가 새날을 연 날이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2020년 2월 23일부터 중단되었던 교회 국수 제공이 3년 만에 이날 전 교인을 대상으로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1월 30일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식당 운영을 재개하는 시점과 잘 맞았고, 이날 3년 동안 썰렁했던 식당이 교인들의 웃음소리와 재잘거리는 아이들 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약 1,300명이 식당을 찾아 제4세대 국수의 맛을 즐겼다.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어려움

주님의교회에서 매주 주일에 제공했던 국수는 그 전통의 맛으로 교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수를 다시 시작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사실 국수를 제공하던 2020년 이전에도 국수 제공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았습니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몰리는 짧은 시간 동안 끓는 물에 국수를 삶고 행구는 일이 워낙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이었지요. 스스로 묵묵히 자원했던 봉사자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대체할 봉사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었습니다.” 이번 국수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주도한 김낙균 장로의 회고처럼, 보기에는 편해 보이는 국수 한 그릇이었지만 결코 봉사자들에게는 쉬운 사역이 아니었다. “식재료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국물을 우려낸 무를 조리고 다시마를 썰어 고명으로 얹었었지요. 그 무와 다시마의 맛 때문에 주님의교회 국수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시마를 빠른 시간에 채로 썰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바빠 서두르다 보면 봉사자가 칼에 손을 베는 일도 다반사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19 종식의 흐름과 함께 2022년 7월 주방 재개를 위한 “식당운영개선TFT”(팀장 김낙균 장로)가 구성되었고, 기존 봉사자 인터뷰와 유관부서 공청회, 다른 교회 탐방 등을 통해서 종식으로 제공할 만한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메뉴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 결과, 한 그릇 국수에 담긴 어려움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주방에서 국수를 삶는 핵심 봉사자는 새벽부터 긴 시간 사역에 지쳐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결원이 되었을 경우 봉사자를 충원하기에도 쉽지 않았다. 많은 교회에서 국수를 종식 제공 메뉴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조리 과정의 위험성 때문이었다. 마지막까지 메뉴 후보로 국수와 자웅을 겨룬 것은 국밥이었는데, 특히 미리 밥을 지어 놓을 수 있어 조리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덜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장점이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전통의 맛인 국수를 재현하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조리 과정에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주방 시설을 개선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주방 사역을 구조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국수 제공 시간을 줄여서 사역자들이 노동이 아닌 기쁨으로 주방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주님의교회 국수의 제4세대

이날 제공된 국수는 전과 달라진 모습이어서 여러 교인의 관심을 끌었다. 주님의교회에서 종식으로 제공된 국수의 역사는 설립 초기에서 시작한다. 당시 창립 교인들은 예배를 마친 교인들과 칼국수를 나누면서 식탁의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교인 몇 분의 헌신으로 마련되었던 칼국수를 주님의교회 국수의 1세대라고 볼 수 있겠다. 칼국수에 이어 1991년 무렵 잔치국수 형태의 국수가 제공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교인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가정에서 마련해 온 고기와 달걀지단 같은 맛깔스러운 고명이 곁들여졌다. 이 국수를 2세대라고 할 수 있을 법하다.

정신학원으로 예배처소를 옮길 무렵,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후 오랫동안 주님의교회의 상징이 된 3세대 국수 조리법이 개발되었다. 황태 대가리, 대파, 양파, 다시마, 멸치, 통후추, 마늘, 건고추, 무 등의 재료를 전날 저녁 다듬고 준비해서, 주일 새벽부터 푹 고아 국물을 내었고, 국물을 내었던 무를 조리고 다시마를 썰어 고명으로 얹은 후, 파 양념장을 얹어 제공하는 차림으로, 다른 어떤 기존 식당에서도 맛보기 어려운 국물 맛과 고명의 독특함으로 많은 교인의 사랑을 받았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주방 봉사가 단절된 시기에, 투병 생활 중에 교회 국수를 드시고 싶어 하였던 교인도 있을 정도였다. 지난 주일 제공된 제4세대 국수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고명이다. 이번 국수에서는 무와 다시마 고명을 없앴는데, 가장 큰 이유는 좁은 주방 상황에서 뜨거운 무와 다시마를 빠르게 고명으로 조리하는 위험성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고명이 유부와 대파로 변경되었다. 국물은 다시마, 북어 부산물, 무, 건고추, 통후추, 마늘, 생강, 대파, 양파 등을 1~2시간 우려서 만든다. 2월 5일 하루에 제공된 국수의 양은 무려 87kg이었다. “많은 분들이 국수가 유부 고명으로 바뀌어서 기존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에 아주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 감당하시고 계신 주방부 가족들과 봉사자께 감사드립니다. 교인 여러분께서도 주방에서 헌신하시는 주방부 가족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기꺼이 봉사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김낙균 장로의 당부였다.

함글함글

교회소식

‘실만한 물가’서적 판매 종료

코로나19로 인해 ‘실만한 물가’가 3년 이상을 문을 못 열어서 기독교 도서와 작은 기독교 소품을 판매하던 ‘실만한 물가’서적 판매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판매를 하지 못해 많은 책들이 재고로 남아 2021년과 2022년에 30% 할인을 하였고 장로회와 교우들께서 많은 책들을 구매해주셔서 재고를 많이 줄였습니다. 남은 책은 국내선교부 협력교회지원팀을 통해서 협력교회 7곳(예제교회 60권, 춘천 세린교회 60권,



포천 송우리교회 60권, 파주 삼성교회 60권, 음성 늘푸른교회 60권, 동해 하늘꿈교회 60권, 서울 흥광교회 60권)에 전달하였고 5층 도서관으로 30권을 전달하였습니다. 지금은 책장에 ‘주님과 함께’를 창간호부터 진열하였습니다. 교회 근처에 기독교 서적이거나 소품을 파는 곳이 많지 않아서 작은 선물하기에 좋았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아야한다고 유아, 청소년과 청년 책을 구입하시는 성도님들과 믿지 않는 분들 전도하신다고 성경책이나 십자가, 액자 등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어 따뜻한 마음들이 많이 오고간 작은 책방이 문을 닫으니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형섭 장로 / 봉사분과위원장

2023 주님의교회
제직수련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직

2023년 1월 29일(주일)에는 2023년 제직수련회가 있었다. 찬양팀의 찬양과 제직회 서기인 신호철 안수집사의 기도 후에는 창동염광교회 황성은 목사의 특강이 진행되었고 이후 이성준 서기장로의 제직부서 소개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직”이라는 주제의 특강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보여지는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선택하셨고, 또 왜 사울을 버리셨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인 제직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할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우리는 ‘사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용하셨다. 분명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 사울을 또한 버리셨다.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도 있을 것이다.

순종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를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니 사울은 두말없이 일어나 암나귀를 찾으러 간다. 아무말 없이 순종한다. 하나님은 능력있는 자를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돈있는 자도 찾지 않으신다. 돈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건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조건은 아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찾는 중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사울을 보셨다. 제직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를 원한다면 나는 얼마나 순종하는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아야 한다.

성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상 9장 4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본문에는 세 번 반복되는 말이 있다. 바로 ‘두루 다녀보았다’이다. 이것은 성실을 말한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으신다. 나귀찾는 일에도 저렇게 성실했던 사울이었기에 왕의 일을 맡겨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니 많은 일을 맡길 수 있겠다는 것이다.

견월망지, 달을 보려면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을 잊어야 한다. 우리의 성실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들리고 시험드는 이유는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시험든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는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다. 이 소통이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정직하게 성실해야 한다.

공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세 번째 이유는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찾을 수 있다.

걱정하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되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리라고 생각했다. 이 마음이 공홀이다. 제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공홀의 마음이다. 공홀의 마음을 갖기 위해 사람을 대할 때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수용성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네 번째 이유는 사무엘상 9장 6절에서 찾을 수 있다.

사환이 사울에게 한 말을 사울이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또 하나의 자격조건은 수용성 즉, 넓은 마음이다. 제직부서를 섬기면서 어떤 이야기든 들을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이 교회를 든든하게 만든다. 이 수용성을 위해서는 진리와 상황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문제는 상황을 진리로 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

사울은 겸손함이 있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겸손을 잃어버렸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표현이다. 겸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다. 내 생각이 있기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생각은 교만이다. 성실도 마찬가지이다. 게을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다. 공홀도 겸손해야 공홀할 수 있다. 겸손해야 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실 것이다.



2023 제직부서 편성

- 공동의회 / 의장 : 김화수 목사

서기 : 이성준 장로

• 당회 / 당회장 : 김화수 목사

서기 : 이성준 장로

재정 : 조병길 장로

감사 : 황용환 장로

• 제 직 회 / 의장 : 김화수 목사

서기 : 신호철 안수집사

1. 목양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목양	손영익 장로	예 배	임익수 장로	이종성 목사
		음 악	서정하 장로	이대혁 목사
		소그룹	변춘석 장로	박주영 목사
		젊은이	김용규 장로	이대혁 목사
		양 육	손영익 장로	윤경수 목사
		봉 사	신형섭 장로	류경민 목사

1) 예배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	부	부장
1	예배부	홍기호 안수집사	4	성찬부	최금주 권사	7	중보기도부	김미성 권사
2	안내1부	김상진 안수집사	5	세례부	이창수 안수집사	8	할렐루야찬양대	이민숙 권사
3	안내2부	손준웅 안수집사	6	새벽기도부	정현식 안수집사	9	영어예배부	김범석 안수집사

2) 음악 분과위원회

#	부	지휘자	부장(대장)	반주자(오르간/피아노)	#	부	지휘자	부장(대장)	반주자(피아노)
1	호산나찬양대	민태경	엄인호 안수집사	이혜정 / 조선희	4	임마누엘찬양대	이명국	김재춘 집사	윤지환
2	시온찬양대	김현욱	정상기 안수집사	황은지 / 오유빈	5	찬양지원부		이효두 안수집사	
3	살롬찬양대	강진명	김찬귀 안수집사	김성희 / 정이와	6	주오오케스트라단		정유경 집사	

3) 소그룹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소그룹지원부	함혜련 권사	2	은사사역부	김지수 권사

4) 젊은이(8교구)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지원부	박재민 안수집사	2	젊은이사역부	원인숙 권사

5) 양육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새가족부	서재화 권사	2	양육훈련부	민연식 권사

6) 봉사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봉사부	오세원 안수집사	4	도서서점부	박동진 안수집사
2	주차안내부	이성욱 안수집사	5	결혼예식부	이상숙 권사

2. 교육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교육	김광일 장로	유아	변춘석 장로	이윤경 목사
		유소년	임익수 장로	이상훈 목사
		청소년	김은성 장로	임경순 목사
		청년	김광일 장로	정구민 목사

1) 유아 분과위원회 유아숲

#	부	담당교역자	1부 부장 / 지도권사, 2부 부장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1부 부장 / 지도권사, 2부 부장 / 지도권사
1	유아숲 교육지원부	이윤경	이미영	5	유아부(쌍트네)	이은솔	최정윤 / 조정숙, 강기선 / 이미화
2	아기정원	이윤경	신미영	6	유치부(담쟁이)	이수진	송 희 / 권이홍, 이숙희 / 이왕희
3	아기부(하임)	김오정	박수희 / 최은실	7	어와나 커비스	김오정	임창남 / 윤현숙
4	영아부(하늘씨앗)	이영선	최우철 / 조은경, 어진원 / 조은영				

2) 유소년 분과위원회
유소년

#	부	담당교역자	1부 부장/지도권사, 2부 부장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1	유소년 교육지원부	이상훈	정유석	5	어와나 스팅	김경민	임창남 / 이춘실
2	유년부(포도나무)	김경민	김애리 / 김선희, 유 경 / 이경란	6	어와나 티앤티	권동준	임창남 / 천옥현
3	초등부(햇살뜨락)	권동준, 이상훈	이상훈 / 문현주, 신재은 / 김경희	7	어린이 EM	정지인	김재울
4	소년부(아름드리)	이수민	이정준 / 원은영, 강정여 / 이춘희				

3) 청소년 분과위원회
청소년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1	청소년 교육지원부	임경순	강희정	4	어와나 트랙	백양선	임창남 / 손태향
2	중등부(팝콘트리)	최혜원, 오성민	김신정 / 임미희	5	어와나 저니	백양선	임창남 / 손태향
3	고등부(비전트리)	김계원, 정우림	최성이 / 이미경				

4) 청년 분과위원회
청년부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 / 지도권사
1	청년부	정구민, 이충만, 조수희, 김세연	신호철 / 임연옥

3. 선교구제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선교구제	유정식 장로	국내선교	홍완식 장로	배윤환 목사
		통일선교	김낙균 장로	류경민 목사
		해외선교	이현식 장로	박민규 목사
		전문선교	유정식 장로	한시영 목사
		구제복지	정준호 장로	배윤환 목사

1) 국내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국내선교지원부	이성호 안수집사	5	협력교회선교부	고경임 권사
2	군경선교부	북향수 안수집사	6	다문화선교부	장동현 안수집사
3	농어촌선교부	천정희 권사	7	기관선교부	권진영 권사
4	도시교회선교부	송재승 안수집사			

2) 통일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 지도권사
1	통일선교지원부	김재민 권사	3	너나들이부	김기연 집사 / 이광실 권사
2	하나원부	정기순 권사	4	대외활동지원부	이영숙 권사

3) 해외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해외선교지원부	박석진 안수집사	4	선교지역 1부	이재홍 안수집사
2	선교기도교육부	안경희 권사	5	선교지역 2부	신성철 안수집사
3	비전트립지원부	박성갑 안수집사	6	외국인유학생선교부	서병운 안수집사

4) 전문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기획운영부	박준명 안수집사	5	사진부	박진현 안수집사
2	성극부	손경숙 권사	6	이미용부	차정숙 집사
3	스포츠선교부	김미선 권사	7	법조선교부	윤승진 안수집사
4	무용부	윤숙영 권사	8	의료선교부	이광우 안수집사

5) 구제복지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교역자	부장
1	구제부	김중호 안수집사	4	전화상담부	배윤환 목사	김숙연 집사
2	복지부	강석구 안수집사	5	사랑나무부	노홍주 전도사	탁준한 안수집사
3	호스피스부	김희수 권사	6	장애인사역부	김은선 목사	탁동원 안수집사

4. 부설기관

1) 청소년사역원

담당 장로 : 서정하 장로
담당 교역자 : 임경순 목사

#	부	부장	#	부	부장
1	청사원지원부	신기숙 권사	3	반가운학교부	이은영 권사
2	학원선교부	김미선 권사	4	꿈나무부	전숙정 권사

2) (사)섬김과나눔

담당 장로 : 최재경 장로
담당 교역자 : 이대혁 목사

#	부	부장	#	위탁기관	부장
1	사무국	이철용 안수집사	4	특별구제부	곽병남 권사
2	늘푸른대학부	정원영 안수집사	5	송파교육복지센터	박은경
3	생활지원부	소봉순 권사	6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

3) 가정사역원(BPC)

담당 장로 : 최재경 장로
담당 교역자 : 한시영 목사

#	부	부장	#	부	부장
1	가정사역부	박재민 안수집사	2	가정사역훈련부	신영숙 권사

5. 전문위원회

위원회 / 센터	위원장	위원	부장
기획조정위원회	김화수	이성준, 유정식, 손영익, 조병길, 김광일, 김낙균, 황바울	
대외협력위원회	이성준	조병길, 김광일, 김은성, 최재경, 임익수, 홍완식, 임경순	(사무국장)
인사위원회	김화수	이성준, 김은성, 최재경, 임익수, 홍완식, 황바울	
예산심의위원회	김화수	이성준, 유정식, 손영익, 조병길, 김광일, 김은성, 김낙균	
미디어관리위원회	김낙균	신형섭, 서정하, 변춘석, 임익수, 박민규	홍보출판부 : 장경식 안수집사 역사자료관리부 : 정원영 안수집사
사무국운영위원회	김화수	이성준, 유정식, 손영익, 조병길, 김광일, 최재경	(사무국장)
선거관리위원회	이현식	김낙균, 서정하, 변춘석, 정준호, 김용규, 윤경수	
치리위원회	김화수	이성준, 유정식, 이현식, 김용규, 홍완식, 황바울	
장학위원회	김은성	이현식, 신형섭, 변춘석, 임익수	장학부장 : 박기운 안수집사
상례위원회	상반기 : 이용수 하반기 : 신형섭	정준호, 김용규, 홍완식, (사무국장)	상례부장 : 박영상 안수집사
주방운영위원회	상반기 : 김낙균 하반기 : 이현식		주방부장 : 김영례 권사
하나님의선교위원회	김화수	황바울, 이성준, 조병길, 유정식, 손영익, 김광일, 김낙균, 이대혁, 배윤환, 박민규, 류경민	
재정위원회	조병길	계수1부 : 최봉수 안수집사 계수2부 : 박태곤 안수집사	재정부장 : 임정식 안수집사
감사위원회	황용환	구태호 안수집사, 윤성진 안수집사, 손태향 권사	

* 상례위원회 하임찬양대 : 대장 – 이혜영 집사 / 지휘 – 안명숙 집사 / 반주 – 유혜경 권사 외 34명

강경희 고유자 김덕임 김애식 김영희 김예경 김종석 김현진 김희수 박경희 박정은 서정하 안경희 안명숙
오성자 오현옥 유소자 유혜경 이경미 이미화 이선순 이소연 이소현 이준완 이혜영 이효두 임성은 임연옥
정루미 정하선 조보연 조정숙 지영민 홍정미

6. 기관 및 자치회 회장

기관 및 자치회	회장	기관 및 자치회	회장
여전도회 연합회장	송성열 권사	남선교회 연합회장	이명기 안수집사
1여전도회	권석자 권사	1남선교회	이명기 안수집사
2여전도회	송성열 권사	2남선교회	이종만 안수집사
3여전도회	홍계옥 집사	3남선교회	최우철 안수집사
4여전도회	전기숙 권사	4남선교회	이성호 안수집사
5여전도회	이주영 집사	5남선교회	이승균 안수집사
6여전도회	탁윤주 집사	6남선교회	윤승진 안수집사
권사회	장현주 권사	안수집사회	구태호 안수집사
		장로회	이용수 장로

7. 담당 교역자

교역자	교구 / 부서	주요 사역(위원회)	기타 사역 및 기관
황바울 목사	선임행정	전문위원회	사역총괄, 목회행정, 피택자교육, 자치회(장로회)
박주영 목사	1교구	소그룹분과위원회	기획, 상례, 교적, 자치회(권사회)
이종성 목사	3교구	예배분과위원회	찬양사역, 중보기도부, 새벽기도부, 자치회(안수집사회)
한시영 목사	7교구	전문선교분과위원회	가정사역원 총괄, 큐티사역, 3분 메시지 / 한절묵상
임경순 목사	청소년	청소년분과위원회	청소년사역총괄, 청소년사역원
윤경수 목사	5교구	양육분과위원회	새가족부, 양육클래스, 세움학당, 선거관리위원회
이대혁 목사	8교구	음악분과위원회 젊은이분과위원회	섬김과나눔(사단법인)
정구민 목사	청년부	청년분과위원회	청년사역 총괄
이상훈 목사	유소년	유소년분과위원회	유소년숲 총괄, 초등부, 어린이제자훈련, 가정사역원(파더와이즈)
배윤희 목사	4교구	국내선교분과위원회 구제복지분과위원회	장애인사역부, 가정사역원(가정예배학교),가정예배(영상), 자치회 (여전도회)
박민규 목사	2교구	미디어관리위원회 해외선교분과위원회	미디어행정(IT/방송/음향), 영상기획 및 관리, 자치회(남선교회)
류경민 목사	6교구	봉사분과위원회 통일선교분과위원회	주방운영위원회, 함줄함울
이윤경 목사	유아	유아분과위원회	유아숲 총괄, 아기정원, 가정사역원(마더와이즈, 아름다운부모학교)

전임 교역자

이진명 목사	목양실, 가정사역원(행정), 하나님의선교위원회	김경민 전도사	유소년숲 행정, 유년부, 가정사역원, 어와나
장성식 목사	소그룹분과위원회, 양육분과위원회, 찬양, 피택자교육, 새가족	김은선 목사	장애인사역부(에바다, 싯딤나무), 가정사역원 (해피맘스쿨, 꿈꾸는3막)
박준범 전도사	젊은이분과위원회, 가정 사역원(결혼예비학교), 큐티사역	이종만 전도사	청년부 비전힐, 행정, 찬양팀, 영상팀
최혜원 목사	중등부, 청소년사역원	김계원 전도사	고등부, 청소년사역원

2023 함글함글 신춘문예
수필 부문 당선작

새벽종

전복례 권사

새 신자 시절, 하루는 미지의 한 교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교회에서 자기를 김OO 권사라고 부른다며 3일 후, 자기 집에서 월례회가 있으니 꼭 참석해 달라는 당부를 해왔다. 그러면서 월례회는 우리 나이 또래로만 구성된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모임이니 앞으로 친구가 되자는 솔직한 말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가는 건 미지수였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 교회는 막연히 두렵고 하얀 베일에 싸인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생각이 많았다. 학창 시절,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또 어디로 가는가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팠다. 그런 끊임없는 생각들은 공상을 불러일으켰고 공상은 불면증이 되어 불청객으로 찾아왔다. 불청객은 불안과 초조라는 친구들을 데리고 언젠가부터 내 안으로 슬며시 들어와 마음의 평화를 몽땅 빼앗아버렸다. 그러고는 공포라는 쇠사슬로 나를 꽂꽂 묶어냈다. 그런 공포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높은 무대였다. 그 무대 속에는 빌딩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건물 안에 사람들도 있었고 건물 뒤쪽엔 꽃과 놀이터도 보였고 건물 비스듬히 반쯤 가려진 교회도 있었다. 결혼해서도 불면증이 남아있던 나는 우렁이처럼 집에만 있다가 하루는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간 곳이 교회였다. 그곳에선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비밀스러운 하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들었던 모든 말들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말에 나는 믿음은 커녕 오히려 불신만 커졌다. 그리고 조용하다가도 교회만 가려면 이상하게도 무슨 일이 생기고, 지난날 누군가에 대한 사소한 섭섭함이 밀려와 교회를 빠지다 보면 마음에서 이런 유혹이 왔다. “이 세상만 한 낙원이 어디 있겠느냐고!”

한편, 현실 세계에 만족하지 못한 내 영혼은 늘 어떤 이상을 꿈꾸며 방황하다가 지치고 외로워지면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곤 했다. 그럼 안락한 그곳은 현실 세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아름답고 황홀했다. 잠시 머물다가 또다시 현실 세계로 나와보면 현실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다. 그런 무서운 현실에서 새로운 신앙 세계로 들어가 보니 믿기지 않는 진리로 대혼란이 왔다.

특히 세상과 신앙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분별력과 상황 판단은 언제나 더디고 어려웠다. 그로 인해 내 이미지가 추락과 경제적 손실도 컸다. 그런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냉철한 믿음이 생길까 하고 하루는 성경책을 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예수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 믿어 의심치 말라.” 참으로 머리로나 생리학적으로나 믿어지지 않는 말이다. 세상에 “귀신이 있나니...” 라는 성경 말씀은 상당한 쇼킹 거리로 다가와 놀라움의 차원을 넘어 짙은 의혹만이 생겼다.

귀신 이야기로 간밤에 악몽을 꾸느라 잠을 설친 나는 골치가 아팠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동으로 내 이마에 손을 얹는다 “예수님! 사랑하는 이 딸의 아픈 머리를 낮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남편에게 나는 항변하듯, 나날이 발전되는 의학과 과학의 힘만을 내세우며 세상에 무슨 하나님과 귀신이 있느냐고! 논쟁을 벌이다가 그날은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았다. 하얀 성의를 걸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양팔을 벌려 높이 들어 올리니 천사의 날개처럼 보여 목사님은 아무 때라도 하늘로 올라가는 거룩한 천사로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강대상 바로 밑에 앉아 설교를 듣는 수많은 교인을 보노라면, 순한 양 떼처럼 보이기도 했고, 어떤 날은 무서우리만큼 강력한 군대로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 들어가 군병으로 합류하기엔 자신이 없었다. 원래 내성적이고 타고난 무심함으로 교인들과 만남은 언제나 서툴고 어려웠다. 오로지 남편의 그늘 속에만 있다가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곧장 집으로 돌아오는 나는 교회만 가면 언제나 이방인이나 다름없었다. 하루는 이 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길에서 가다 서다 고장 난 자동차처럼 교회에 가다 말다 그런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현실 세계에서 신앙 세계로 자주 넘나들던 내 영혼은 어디를 가나 쉼을 얻지 못해 나는 중얼거렸다. 차라리 이참에 교회를 그만두고 예전처럼 적당히 살자고. 마음을 접는 시기에 미지의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실은 월례회보다 그녀가 보고 싶었다. 그러나 월례회 날 아침, 마음에서 조롱이 왔다. “믿음도 없는 네가 그런 데를 다 가느냐고!” 두렵고 복잡한 생각에 그녀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으려고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세상 친구와 약속한 장소로 가기 위해 지름길인 석촌동 골목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발걸음과는 달리 온몸으로 느껴지는 영감을 따라 고개를 돌리니, 고즈넉한 교회 마당에 종탑이 보여 멈춰섰다. 가까이 가봤다. 종탑은 역사가 내 나이쯤 됐을까. 연수를 가늠할 수 없는 세월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목재로 된 2층 반 높이의 종탑은, 청동색으로 얼룩진 구릿빛 종을 감싸듯 마당에 세워져 있었고, 탑에 걸려 15도 각도로 기울어 멈춰진 종은 내 초등학교 때 들었던 새벽종 소리를 떠올리게 했다

시골의 온돌방은 매우 따뜻하다. 그러나 새벽녘엔 문풍지가 울어대는 칼바람 소리에 이불을 뒤집어쓴다. 답답함과 어둠이 싫었던 나는 몸을 뒤척이다가 일어나 등잔불을 켜다. 그럼 석유가 닳는다는 어머니의 걱정도 혹 꺼버리고는 도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는데, 어디선가 멀리서 감감하게 땡 땡 땡 새벽종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온다. 날마다 짙은 새벽녘에 들려오는 맑은 종소리는 어둠을 밝히는 한 가닥의 불빛과도 같이 언제나 내 마음과 방안을 환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 은은한 새벽종 소리에 눈을 떴다 감았다 하다가 다시 눈을 감으면 그 종소리는 어디론가 나를 한없이 이끌어간다.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고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아주 높은 곳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금빛 찬란하고 황홀함에 눈이 부셔 실눈을 떴다 감았다 하다가 답답함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정신을 차리니, 방문 창호지가 다듬질한 흰 광목처럼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다.

석촌동 동네 길목에서 소리가 멈춰진 종을 한참 올려다보는데, 그 옛날 저 종을 누가 쳤을까 누굴까? 그리워지는데, 문득 그녀의 전화 목소리가 새벽종 소리로 들려 세상 속으로 걸어가던 내 발걸음을 바꿔냈다. 그녀의 현관문은 반쯤 열려있었다. 미지의 그녀를 만난다는 설렘은 컸다. 망설였다. 벨을 눌렀다. 주방에서 누군가 급히 나온다. 직감적으로 그녀임이 틀림없다. 보자마자 잘 왔다고 반갑게 내 양손을 잡고 기뻐하는 그녀의 얼굴은 목련을 보는 듯 은혜로운 빛이 나고 있었다.

월례회가 시작되었다. 목사님께서 “올해는 교회 표어가 도전의 해이니만큼 우리도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신앙의 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 도전이라는 단어만 마음에 두었다. 그녀는 신임 회장이었다. 20명이 넘는 회원들은 각각 부서별로 나누어졌고, 나는 그녀를 따라 친교부에 속했다. 교회에 행사가 있거나 각종 모임과 예배가 있는 날이면 그녀는 친교부라는 명분을 내세워 거의 매일같이 나를 불러냈다. 친절함 그녀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에 동참하다 보니 갈수록 일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쏠쏠함으로 사람이 좋아지면서 불면증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고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새같이 지나갔다. 그녀가 오래전에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반가웠다. 서로 안부를 묻고 묻는데, 그녀는 오늘도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그녀는 변함없이 교회에 충실히 헌신하고 있었다. 전도지는 누군가에게 빛을 발하는 새벽종의 은은하고 맑은 소리로 남겨지리라.

주일 아침이다. 남편과 승용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데, 차 속에서 나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만든다. 나의 할 일은 과연 무엇인지.

2023 함즐함울 신춘문에
수필 부문 당선소감

마음속 혼란과 고통 잊으려 시작한 글쓰기



우리는 글을 통해 마음속 혼란을 털어놓습니다.

많은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가 있겠지만, 저 역시 동기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호기심 많고 병약했던 저는 초등학교 시절 글짓기라면 무서워 벌벌 떨었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저는 1960년대 후반 금융기관인 조흥은행에 다니면서 불면증이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확신이 없는 저는 오랫동안 병원만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따라간 기도원에서 홀연히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예전과는 달리, 집에서 할 일이 없어 따분해지면 낙서를 했습니다. 베란다에서 가을 하늘을 바라보다가 어떠한 영감이 스치면 방으로 들어와 썼습니다. 영감에 따라 어떤 때는 노트에다 글자를 반듯반듯하게 쓰기도 했고, 어떤 때는 휘갈겨 썼습니다. 낙서를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70대 중반인 내 나이에 함즐함울 신춘문에 수필 부문에 응모하게 된 건, 오래전 낙서로 써왔던 기억을 토대로 썼습니다.

한 달 전부터 코로나19를 심하게 앓았던 저는 긴 후유증의 고통을 잊기 위해 고장 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무심코 신춘문에 소식지가 떠오르기에, 가끔 먹통이 되는 컴퓨터 자판과 씨름하면서 계속 두드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끝을 맺은 부족한 졸작을 당선시켜 주심으로 제 가슴에 꿈을 심어주신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복례 권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기고
매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강론할 것이며 _ 신명기 6:5~7

2023 함글함글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소감

빛이 빛이 되는 기적

혹시나 하고 본 신문에 내 시가 눈에 들어와 아내에게 보여주며 가볍게 흥분해서 가슴마저 두근거렸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슴 벅찬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오래전 어느 여름날 직장에서 잠시 쉬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려 춤추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의 신비함과 힘에 끌려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 후 전철역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불현듯 수십 년 전 일이 생각났다. 빛진 자로 살면서 빛을 갚으려 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나님께 진 빛을 어찌 갚을 수 있으랴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영적인 시를 쓰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신춘문에 당선작이 되고 나니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약하고 유혹 받고 무너지기 쉬운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끊임없는 사랑으로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빛이 빛이 되는 기적을 꿈꾸어 오다가 이제야 다 소나마 서광이 비치는 것 같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 힘든 영혼을 위로하는 영감을 달라고 졸라봐야겠다. 교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경봉 집사

2023 함글함글 신춘문예
심사평

불확실성의 시대, 문학에 대한 기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느낌이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사회문화적 흐름은 마치 후유증처럼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대면 문화, 개인 중심주의와 파편화 현상 등과 같이,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그 정도가 급격하게 심화되거나 확산되어 온 여러 증후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독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흐름 속에서 시, 수필 등과 같은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하는 일은 희망, 회복, 공감, 연대와 같은 문학 본연의 공간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살펴보아야 할 기독교인의 정신세계를 돌아보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글을 쓰고 읽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의 도전과 불확실성을 은혜와 공감, 믿음과 소망을 통해 탐색하는 방법에 대한 관점과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은 2023년 함글함글 신춘문예의 응모자는 시 부문 5명, 수필 부문 5명, 간증 부문 1명이었다. 그러나 많지 않은 응모자 가운데에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응모 편수나 원고 분량과 같은 응모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현역 문인과 함글함글 신춘문예 기존 당선자로 이루어진 본심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시 부문에서는 고경봉 집사의 <사람이란>이, 수필 부문에서는 전복례 권사의 <새벽종>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시 당선작 <사람이란>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기도문의 일부와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신앙인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미덕이 있다. 세상적으로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은 신앙인은 이 세상을 당당한 모습으로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 이 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과장이나 상투적 꾸밈없이 소박하고 평이한 시적 묘사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으면서 당선작으로 추천되었다.

수필 당선작 <새벽종>은 믿음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과 믿음을 접한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 즉 구원과 성화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믿음이라는 새로운 환경,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은 내적 갈등의 소박한 역사를 되새겨보며 믿음을 택한 자는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글이다. 이 본질적인 주제를 새벽종이라는 기억의 중개자를 통해 드러낸 이 수필은,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면서도 담백하고 겸손하여 수필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으면서 당선작으로 추천되었다.

함글함글 신춘문예에 당선된 두 분에게 두 손 모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주님의교회 공동체라는 텃밭에 함글함글과 함께 문학의 씨를 함께 뿌리고 가꾸어나가는 동료로 되어 주실 것임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함글함글

성도의 글

이 땅에 밥 굶는 이가 없을 때까지- 청량리 밥퍼에서(2023.1.25.)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는 날, 설 명절 연휴가 끝난 첫날로 모두 일터로 나가는 날인데 방송에서 일기예보 시간 때마다 한파경보가 내려서 춥다며 체감온도가 영하 23도라고 하는 무서운 일기예보 멘트가 나오고 있는 아침입니다. 예전에는 옷도 얇고 난방은 연탄난로나 석유난로 등으로 땀감도 없어 손을 호호 불며 발을 구르던 생각하면 이것쯤은 아무런 탈 없이 지낼 수 있으면만 하는 생각이 앞서기도 합니다.

매우 추웠던 설 명절 연휴가 지난 첫날, 청량리 굴다리 밑에서 노숙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 라면을 끓여드리고 밥을 나누어 드리던 '청량리 밥퍼(다일 공동체)'에 다녀왔습니다. '초창기에 주님의교회 여러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한 봉사자들이 많이 봉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1988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하니 굴다리 밑 봉사를 시작한지가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굴다리를 지날 때는 '그때는 굴다리 밑 어느 곳에서 배식을 하며 그분들은 어느 곳에서 식사를 하셨을까?'하며 그 당시 봉사자들 모습과 밥을 드시던 분들의 모습, 그리고 식사를 하던 장소 등 여러 상상도 하며 청량리 밥퍼로 갑니다.

제가 봉사를 한지도 벌써 15년쯤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청량리 밥퍼에서 제가 고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량리 밥퍼에 가려면 사창가 집창촌을 지나 굴다리를 지나가던 길이 이제는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들이 신축되어 많이 변하기도 하였지만 점심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적어졌다는 것도 변했습니다. 재개발이 되어 많은 분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시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추운 날에 털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목도리를 하고 청량리역에서 내려 굴다리를 지나 청량리 밥퍼에 가며 여러 생각에 잠겨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식당이 폐쇄되어 굴다리 밑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비닐봉지에 담은 밥과 반찬과 마스크를 한 분 한 분에게 드리면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하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청량리 밥퍼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점거한 무허가 건물이라 헐려야 한다고 방송국에서 취재도 나오고 인터뷰 기사도 나오고 하던 여러 모습들이 이제는 추억으로 지나갑니다.

'점심식사를 하러 오시는 그분들이 연휴 때는 식사를 어떻게 하셨나?'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추우니 가지 말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추운 날씨에 봉사자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그래도, 그래도 가야지'하며 청량리 밥퍼에 도착을 하니 식사를 하러 오신 많은 분들이 빈자리 없이 꽉 차서 배식하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추운 날씨에, 이 추운 날씨에 난방비가 예전보다 많이 인상되어 중산층들도 난방을 많이 안 틀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추위에 그분들은..'하는 생각을 하며 그래도 난방이 되어 따뜻한 청량리 밥퍼 식당에 이른 아침부터 와서 식탁에 앉아서 배식을 기다리는 분들의 모습을 한 분 한 분을 쳐다보았습니다.

봉사 현장은 겨울이 깊어져 올겨울 가장 춥다고 하는 날씨에 칼바람이 살 속을 파고들어도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반찬을 만들고 배식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자원 봉사자들이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배식을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무허가

라서 법을 어겼다하여 개축 공사를 못하고 있는 청량리 밥퍼 식당 천장에서 추운 날씨 때문에 파이프가 얼었는지 파이프가 터져서 물 바닥은 물이 질퍽거렸지만 정확하게 11시부터 배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동안 찬송가가 흘러옵니다. 저는 그 시간 봉사를 하면서 늘 은혜를 느끼는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보라" 찬양을 들으면 봉사를 하는 시간에 발걸음이 더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요즘은 청량리 밥퍼 분위기가 영 안 좋아서 우리들 마음까지 더 추운 듯합니다.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야 할 텐데'하는 생각에 마음이 어둡습니다.

점심 한 끼 식단으로 청국장에 돼지고기를 넣어 만든 국을 드시며 귀한 단백질로 영양 보충을 하기도 하고 콩나물 무침과 토란 볶음과 김치와 더불어 한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기다렸던 분들이 식판을 들고 추가 밥을 받아 다시 배가 고프을 채우는 분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집에 있는 장애인 아들에게 밥을 가져다주려고 남에게 안 보이게 몰래 비닐에 밥을 더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는 마음에 은혜를 더욱 더 느껴봅니다. 저는 밥퍼 봉사를 하면 식판을 나눠 드리거나 추가 밥을 더 퍼드리는 봉사를 할 때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늘 그분들의 눈동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 국자의 국과 한 주걱의 추가 밥을 드리면서 "맛있게 드세요. 더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은 설 명절 후라 식판을 드리며 "맛있게 드세요" 하니 그분들께서 "새해에는 복을 더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시는 덕담을 듣는 은혜로운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청량리 밥퍼에서 그분들께 한 끼의 식사라도 조금이라도 돌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 같아 보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함을 느끼며 봉사를 마친 후에 전철을 타고 집에 오며 배식을 해드린 청국장 국 때문에 몸과 옷에 청국장 냄새가 배어있었지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박한 삶에서 행복의 문과 사랑의 문이 활짝 열려있나 봅니다"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것은 새 그릇에 담아야 좋듯이~ 추워서 솔직하게 '갈까? 말까?'를 망설이며 다녀온 첫 출발하는 새해에 뿌듯함을 안고 온 2023년 첫 출발 소중한 봉사였음에 최고였습니다. 함께 봉사 현장에서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올 한해가 '선을 행함과 서로 사랑을 나누어 주기는 날들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행한 작은 봉사의 사랑에 많이 감사하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고마웠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청량리 밥퍼에서는 2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오전 7시부터 떡국과 누룽지 같은 따뜻한 메뉴로 아침식사 배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형섭 장로



교사일기
어와나 티앤티

교사 10년차, 부모 16년차. 나도 자라고 있을까?

아이가 6살 때 어와나 커비에 입단하며 아이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사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교사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10년 채우고 그만 두어야지.”속으로 생각하며 1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선생님의 축하와 어와나 본부의 축하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과 환경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올 수 없는 길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이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해야겠구나’하고 다짐했습니다. 혼자였으면 몰랐을 것을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너무 달라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기에 사랑하면서 ‘아,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사를 하면서 주님은 아이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을 많이 바꾸어 놓으셨고,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교사로 섬기지 않았다면 만나지도 못했을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졌고, 내 아이를 더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내 자녀는 단점만 보이고, 남의 자녀는 장점만 보입니다. 혹여라도 다른 선생님이 내 자녀를 칭찬하는 것은 가볍게 넘기면서, 내 자녀의 연약한 부분이 눈에 보일 때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계속 잔소리하게 됩니다. 나는 욕심을 가지고 내 아이를 대하지만 다른 선생님은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에 내 눈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의 눈이 더 정확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내 아이가 아니면 객관적일 수 있고, 좀 더 인내할 수도 있고,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면서 칭찬도 더 잘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내 말이 아닌 다른 선생님의 말씀을 더 잘 듣나 봅니다.

교사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하나님은 저에게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채우셨습니다. 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 선생님의 모습을 곁에서 보고, 선생님들과 서로 나눴던 교제가 제 신앙을 많이 성장케 했습니다. 15년 한결같이 성실하신 선생님, 아침마다 30분씩 일찍 오셔서 청소하시는 선생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정확히 고르고, 예쁘게 포장하며 행사 때마다 빛을 발하시는 선생님, 재미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해주시는 선생님, 아침마다 간식을 선물해 주시는 권사님, 신앙 간증으로 도전을 주시는 선생님, 심방 전화를 너무 잘하셔서 팀을 알려주시는 선생님, 찬양과 율동을 예쁘게 잘하시는 선생님,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곳에서 매주 오시는 선생님 등의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힘이 나고, 나태한 저의 모습을 반성하고 다시 열심을 내야지 다짐하기도 합니다. 함께 성경도 통독하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서로 중보기도하며 고단한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과의 교제가 교사를 이렇게 지속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또 교사를 맡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고, 아이의 마음도 알아가며 신앙적으로도 부모로서도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올해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기를 소망하며 어와나 개강을 준비해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벧후3:18)”

엄미영 교사 / 어와나 티앤티

교회사용설명서⑪

제직 이해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제직’은 예수님의 뜻을 받아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장에는 “주 예수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세속 행정기구와는 다른 교회의 제직의 손에 통제 기관을 정해주셨다”, “이 제직에게 천국의 열쇠들이 맡겨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는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제직에 속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다. 정리하자면,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제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직’들의 공식적인 회의는 ‘제직회’로서, 당회원들이 참여하는 당회, 18세 이상의 전 교인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와 함께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주님의교회 <정관>에는 제직회에서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의 통과,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하여 출석 회원 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 방법

주님의교회에서는 매년 초 교회의 운영을 위한 제직 부서를 편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주님의교회 제직 부서는 목양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구제위원회, 부설기관,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제직 부서 편성은 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속한 제직 부서를 위해 임명된 제직들로 이루어진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일부 전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각 제직 부서의 담당 부서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임기 후에는 다른 제직 부서로 옮겨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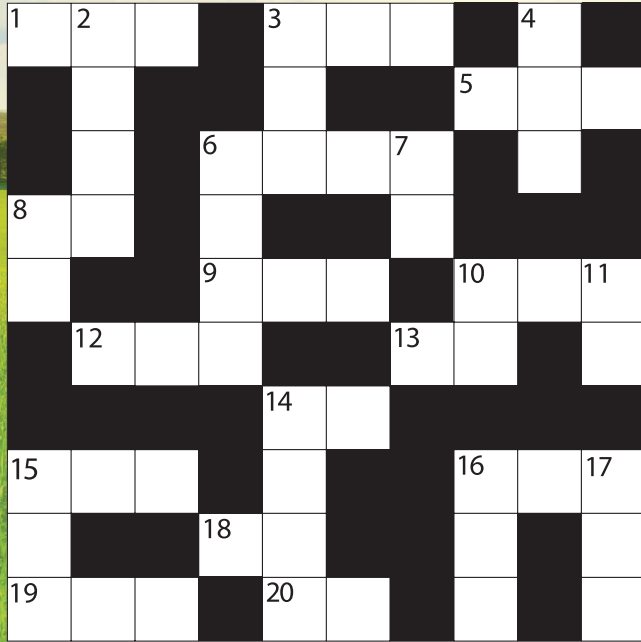
관리법과 주의사항

제직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맡은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특히 다음의 몇 가지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제직은 예수님의 뜻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다. 모든 직분이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작은 역할의 차이만 있음을 이해해야 하며, 직분의 고하에 따라 군림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제직은 예수님의 청지기이다. 청지기는 자신의 재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제직은 예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제직은 일하는 사람이다.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봉헌하듯,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봉헌하는 것이 제직의 일이다. 자신이 잘 모르는 일이라도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배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직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제직은 예수님을 머리로 둔 지체가 되어 교회의 일을 나누어 섬기는 사람들로서, 필연적으로 다른 제직과 서로 도우며 일하게 된다. 합력으로 선을 이루는 것이 근본이다.

함글함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사무엘하편

이번 호에는 <사무엘하>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왕위가 넘어간 후 다윗의 치세 기간에 대한 역사서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62호 룯기/사무엘상 편 정답



가로 힌트

- 예루살렘 남서쪽 30km 지점에 위치한 고산지대. 이곳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으며, 다윗은 왕이 되어 이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삼하 5:5)
- 블레셋 가드 사람으로 골리앗의 동생.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에 의해 살해되었다. (삼하 21:19)
- 사울의 군 사령관으로 사울의 삼촌이었던 벨의 아들. 사울과 다윗이 전쟁하는 동안 권세를 잡았고 사울의 첩을 통간하기까지 했다. (삼하 3:6~7)
- 사울 왕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 사울이 죽은 후 약 2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렸다. (삼하 2:8~9)
- 유다 왕국의 가장 북쪽에 있던 지역.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낸 지역이다. (삼하 5:25)
-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비옥한 땅.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대항하기 위해 진을 쳤던 곳이다. (삼하 23:13)
- 사울 왕의 큰 아들.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으며,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 왕의 지위를 다윗에게 양도했다. (삼하 1:17)
- 라이스의 아들. 미갈의 두 번째 남편 발디의 다른 이름이다. (삼하 3:15)
- 룯이 큰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손. 다윗이 정복하여 조공을 바치게 했다. (삼하 8:2)
- 셈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지역. 다윗에게 대항하여 동맹군을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던 중 다윗에게 패하고 말았다. (삼하 8:3~12)
- 다윗 왕 때의 서기관. 스와라고 불리기도 했다. (삼하 8:17)
-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벧엘 서쪽 10km 지점의 산악도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사한 곳이다. (삼하 1:6)
- 높으신 분이 노하는 것.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에 대해 이 말을 사용했다. (삼하 6:7)
- 길르앗에 있는 성읍. 사울이 죽자 장사를 지냈으며 다윗의 축복을 받았다. (삼하 2:4~5)
- 다윗의 맏아들.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억지로 취하였다가 다말의 친 오빠 압살롬 부하의 손에 살해되었다. (삼하 13:15~29)

세로 힌트

- 네게브 지역에 위치한 성읍.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 영토의 남방 한계선으로 불렸다. (삼하 3:10)
- 베냐민 사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아내로 취한 발디엘의 아버지였다. (삼하 3:15)
-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던 베냐민 지파의 성읍. 다윗의 군사와 사울의 군사가 전투를 벌였다. (삼하 2:12~16)
- 잇사갈 지파의 한 성읍. 다윗의 아내 중 하나인 아히노암이 이곳 사람이었다. (삼하 2:2)
- 첫째, 둘째 다음에 오는 말. 압살롬은 다윗의 ○○ 아들이다. (삼하 3:3)
- 예루살렘과 옴바中间的 팔레스타인 평지에 위치한 고대 가나안의 성읍.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까지 이르니라" (삼하 5:25)
-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 다윗 시대에 군대 장관을 오랫동안 지냈으며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다. (삼하 2:13)
-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지며 옷차림을 꾸미는 것. 고대 애굽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 (삼하 13:18)
- 다윗의 아내 중 하나. 시글락에서 아버지가일과 함께 아말렉 사람들에게 사로잡혔으나 다윗이 다시 되찾아 왔고 아들 암논을 낳았다. (삼하 3:2)
- 다윗의 자매. 나하스의 딸이며,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 아비새, 아사헬의 어머니였다. (삼하 17:25)
- 요단 동편, 북쪽으로 아르뭇 강, 남쪽으로 아르논 강, 서쪽으로 요단 계곡 사이의 지역.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이곳으로 피신했다. (삼하 17:24)
- 시나이반도와 네게브 사막 북동쪽의 황폐한 땅에 살았던 족속. 사울의 진멸을 피해 남아 있다가, 다윗에 의해 다시 공격당했다. (삼하 1:1)

